

#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 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1)\*

A Study on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and Policy Implications(1)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유 가 효  
부교수 박 혜 인  
대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박 충 선  
조교수 조 희 금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Home Economics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Associate Professor Yoo, Ka Hyo  
Associate Professor Park, Hye In  
Taegu University  
College of Home Economics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Assistant Professor Park, Chung Sun  
Assistant Professor Cho, Hee Kum

## 目 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맺음말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분석 및 고찰 |         |

## 〈ABSTRACT〉

The study examines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women employed in a manufacturing industry. Data were gathered from the use of face-to-face interview method from a sample of 230 married working women.

\* 본 연구는 199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ost of the respondents found the work repetitive and unappealing, with the double burden of a paid work and housework.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social policies for married working women, such as establishment of various child care centers, part-time jobs, and dissemination of egalitarian sex-role attitudes.

(2)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born in rural areas and immigrated to the urban sectors, forming a nuclear family structure. Most of these women were married with love, but some of them could not have a marriage ceremony because of the economic reasons. Thus, it may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service centers to offer a free marital ceremony.

(3) About 3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left their preschool aged children unattended, after dismissing from a kindergarden on a private institution. It was shown that working women, even though they were in charge of child-rearing, did not have an effective mechanism to control or protect their children while they were away from home. Most of them frequently used material compensations for their children in order to make up their absence at home.

(4) It was found that the strategy for working women to decrease a dual-role conflict is to make a hierarchy on the work they have to do and to do only basic housework for everyday life and to do the rest of work on a off-day.

##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1962년 부터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 계획 정책에 의한 산업화를 통하여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속에서 값싸고 질좋은 여성 노동력 공급은 선진국 대열에 끼이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 노동력은 이제 노동 시장내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노동력 공급원으로 정착하였다. 먼저 여성노동력의 양적인 변화를 살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도 36.3%에서 1987년도 45%로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중 여성의 구성비는 1987년 40%에 이르러 지난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경제기획원, 1987). 한편 질적 변화로는 직종분포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즉 1963년도 여성 취업자들의 70% 정도가 주로 농수산업에 편중되어 있었던 반면 1987년에 이르러서는 그 비율이 25%로 감소되면서, 다른 산업부문에도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다. 그중에

서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비율은 1987년도에 30.9%에 달하였다. 이와같이 농수산업의 편중에서 탈피했다는 점외에도 여성 노동력의 또다른 변화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여성사 연구회, 1989). 즉 여성 노동자중에서 기혼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7년 9.7%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는 25.5%에 이르러 지난 10년간 3배로 증가하였다. 물론 아직도 미혼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여성노동자는 곧 미혼이라고 인식되었던 1960년, 70년대에 비하면 기혼 여성 노동의 이러한 증가는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혼여성노동력의 증가 추세는 인구증가율의 감소 및 교육수준 상승으로 인한 미혼여성 노동자의 노동력 공급의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직종에서 계속될 전망이다(이각범, 1984).

여성 노동자의 양적인 성장 및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80년대 들어와 나타난 구인난 현상으로 인하여 여성 노동력, 그중에서도 특히 기혼 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체 여성 노동력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기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기반을 둔 복지 방안 및 정책수립 등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기혼여성들에게 있어서 노동시장 참여는 곧 가사노동과 임노동의 이중노동의 부담을 안겨 준다.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저학력, 미숙련 기술에 의한 단순 노동으로 사회의 저소득층에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가사노동의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임노동을 하게 마련이다. 즉 생산직 기혼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동시에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이중적 대립적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혼 여성노동자의 특수한 현실 상황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생활 실태와 노동시장내의 구조적 불안정성등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에 대한 역할갈등이나 역할갈등같은 단편적인 언급에 그쳤을 뿐, 생산직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실증적 고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 편중된 조사라는 지역적 제한도 포함할 수 있다. 본 논문(제1보)에서는 대구지역의 생산직 기혼 여성의 생활 실태분석을 일터와 가정생활의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피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후속 논문(제2보)에서는 본 논문의 실태분석에서 규명된 사실들을 종합하고 각 관련 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심층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 여성의 기본권 확보와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 방안 및 개선책을 강구하여 여성 인력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서 기여하고자 한다. 즉 생산직 기혼 여성의 구체적인 실상과 부부갈등 및 자녀 양육 문제등의 가족생활의 제반 문제, 주택 및 경제활동 문제, 노동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상의 미비점등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향상 및 취업, 생활보조, 복지편의시설 확충, 주택환경개선, 자녀양육시설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정비에 이르기까지 각 부분에 걸친

종합 복지 대책을 구상함으로써 생산직 기혼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이들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데에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혼 생산직 여성의 전반적인 가정생활 실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되었다. 즉 가계경제 및 주거, 가족생활, 자녀보육 및 관리, 가사노동 및 가사분담, 그리고 취업실태 및 근로의식에 관한 것으로써, 각 영역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가계경제 및 주거

1-1. 생산직 기혼 여성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실태는 어떠한가?

1-2. 생산직 기혼 여성의 주거상황은 어떠한가?

#### (2) 가족생활

2-1. 생산직 기혼 여성의 가족형태는 어떠한가?

2-2. 생산직 기혼 여성의 세대간의 이동과 친정, 시가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2-3. 생산직 기혼 여성의 결혼형태 및 결혼과정은 어떠한가?

#### (3) 자녀보육 및 관리

3-1. 유아기 자녀의 보육실태는 어떠한가?

3-2. 학동기 자녀의 방과후생활과 훈육실태는 어떠한가?

#### (4) 가사노동 및 가사분담

4-1. 생산직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 및 가사노동 시간의 실태는 어떠한가?

4-2. 생산직 기혼 여성의 가사분담 실태는 어떠한가?

#### (5) 취업실태 및 근로의식

5-1. 생산직 기혼 여성의 취업구조 실태는 어떠한가?

5-2. 생산직 기혼 여성의 근로의식 및 직업만족도는 어떠한가?

5-3. 생산직 기혼 여성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지역 제조 업체에 종사하는 생산직 기혼 여성으로 230명을 설문지를 통해 개별 면접하였다.

###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가계경제 및 주거상황, 가족생활, 자녀보육 및 관리, 가사노동 및 가사분담실태, 취업실태 및 근로의식, 직업만족도, 노동에 대한 기혼 여성의 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서 개방형 질문과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병행한 설문지였다.

가계경제: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을 조사하였다.

주거상황: 주거소유상황 및 동거가구, 사용방수, 주택마련준비 및 수단, 부엌, 상하수도, 화장실사용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가족생활: 가족유형, 크기, 주기 및 세대간의 이동, 친정, 시가간의 관계, 결혼형태 및 결혼과정 등을 조사했다.

자녀보육 및 관리: 유아기자녀의 보육실태 및 학동기자녀의 방과후 생활관리 및 훈육실태를 알아 보았다.

가사노동 및 가사분담실태: 가사노동수행 및 가사노동시간, 가사분담실태를 조사했다.

취업실태: 대상기업의 규모, 퇴직금, 승진 및 정년제도의 여부, 작업환경 및 성차별여부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근로의식: 결혼율, 이직여부, 그리고 취업의식을 통하여 기혼 여성의 전반적인 근로의식을 측정하였다.

직업만족도: 전반적인 직업만족도와 더불어 임금, 휴가,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노동에 대한 태도: 기혼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4개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의 응답을 제시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자료는 1989. 11월~12월에 1차 조사지역 답사와 예비조사에서의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 보완하여 1990. 7월 1차 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0. 8월~11월 2차 조사업체 답사 및 선정을 통해 1990. 12월~1991. 1월의 2차 본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6개 제조업체와공단 밀집지역인 서구와 북구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아동의 어머니들 중에는 생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차 조사는 서구의 이현공단, 북구의 제3공단, 동구의 제조업체들 가운데 기혼 여성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협조의뢰문을 보낸 후, 전화 및 사전 방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16개업체를 선정하고 조사자들이 각 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대상자와의 개별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자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 4명과, 사전 훈련을 받은 계명대 대학원생 및 계명대와 대구대의 대학생들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실태파악을 위해 빈도, 분포, % 및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1)에서 보면 조사대상 생산직 기혼 여성의 평균 연령은 39.9세이며, 20대 13.0%, 30대 35.7%, 40대 37.4%, 50대 13.9%이고 최고령은 59세였다. 조사대상자의 9.1%(21명)는 남편이 없었으며, 남편의 평균연령은 43.2%세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국졸이하가 41.0%였다. 남편 학력은 부인 학력보다 높아서 대졸이상이 5.3%였으며, 국졸이하의 비율은 17.7%로 부인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남편의 학력은 부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직업은 단순생산직의 비율이 높아서 전체의 33.3%였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도 9.7%나 되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2.6% 확대가족이 17.4%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구 분	%(N)	변 인	구 분	%(N)
부인연령	29세이하	13.0(30)	남편연령	29세이하	6.7(14)
	30 - 39	35.7(82)		30 - 39	28.7(60)
	40 - 49	37.4(86)		40 - 49	38.8(81)
	50세 이상	13.9(32)		50세이상	25.8(54)
	계	100.0(230)		계	100.0(204)
부인학력	국졸이하	41.0(94)	남편학력	국졸이하	17.7(37)
	중졸	39.7(91)		중졸	35.9(75)
	고졸	19.2(44)		고졸	41.1(86)
	계	99.9(229)		대졸	5.3(11)
가족형태	핵가족	82.6(190)	가계의 월평균 소득	계	100.0(209)
	확대가족	17.4(40)		가계의 월평균 소득	30만원이하
남편직업	없음	9.7(20)	31 - 60		15.7(35)
	단순. 생산직	33.3(69)	61 - 90		41.8(92)
	자영업	10.7(22)	91 - 120		18.6(41)
	기술직	24.1(50)	121만원이상		7.3(16)
	사무직	15.9(33)	계	99.9(220)	
	기타	6.3(13)	자녀수	없음	2.2(5)
	계	100.0(207)		1명	21.3(49)
주택 소유형태	자가	33.0(75)		2명	38.3(88)
	전세	37.4(85)		3명	23.0(53)
	월세	25.6(58)		4명	11.3(26)
	기타	4.0( 9)	5명이상	3.8( 9)	
	계	100.0(227)	계	99.9(230)	

핵가족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수는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33.0%, 전세가 37.4%,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가 25.6%였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남편의 월소득과 부인의 월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것으로 월 30만원 이하가 16.4%, 31~60만원이 15.7%, 61~90만원이 41.8%, 91~120만원이 18.6%, 121만원 이상이 7.3%였으며, 전체 평균은 73.7만원이었다. 기타 소득에는 자녀의 기여가 커서 전체 대상가구의 14.3%가 자녀의 소득을 가계에 보태고 있었다.

### III. 결과 분석 및 고찰

#### 1. 생산직 기혼 여성의 가계경제 및 주거상황

##### 1) 가계경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로는 40%가 내집마련, 27%가 경제문제, 18%가 자녀문제, 11%가 건강문제, 나머지가 부부적응문제 및 기타라고 응답하여 생산직 기혼여성들에게 있어서 주거 및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 (1) 가계소득

조사대상자 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월평균 73.7만원으로 이는 1989년도 전도시 근로자 가계의 80.5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기획원 1990). 그 가운데 조사대상자인 부인의 월평균 소득은 30.7만원이고, 가구주인 남편의 월평균 소득이 40.9만원, 기타소득이 5.8만원이었다.

부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는 <표 2>에서 보면, 64.

〈표 2〉 조사대상자의 경제 및 주거상황

변 인	구 분	%(N)	변 인	구 분	%(N)
부인의 월평균소득	20만원이하	7.2( 16)	생활비 지출순서	식료품비	43.1( 97)
	21 - 30	64.3(142)		교육비	33.8( 76)
	31 - 40	21.3( 47)		집세	9.3( 21)
	41만원이상	7.2( 16)		의료비	3.6( 8)
	계	100.0(208)		기타	10.2( 23)
부인소득의 주된쓰임새	생계비	69.2( 153)	계	100.0(225)	
	저축	18.1( 40)	빛의 여부	있다	33.3( 66)
	교육비	7.7( 17)		없다	66.7(132)
	용돈 및 여가비용	1.8( 4)		계	100.0(198)
	집세	1.8( 4)	빛이 주로 쓰인 곳	집문제 사업관계	47.5( 29)
	기타	1.4( 3)		의료비	16.4( 10)
	계	100.0(221)		의료비	14.8( 9)
동거가구수	단독가구	13.8( 31)		교육비	6.6( 3)
	2 가구	23.6( 53)		생활비	4.9( 3)
	3 가구	25.9( 58)	기타	9.8( 6)	
	4 가구	17.0( 38)	계	100.0( 61)	
	5가구이상	19.6( 44)	화장실 사용	단독사용	32.2( 73)
	계	99.9(224)		2가구공동	20.3( 46)
사용방수	1 칸	33.9( 77)		3가구공동	23.8( 54)
	2 칸	45.4(103)		4가구공동	10.1( 23)
	3 칸	18.1( 41)		5가구이상	13.7( 31)
	4칸이상	2.6( 6)	계	100.1(227)	
	계	100.0(227)	주택마련 수단	계	12.0( 12)
주택마련 준비	한 다	48.6(101)		은행저축 및 보험	84.0( 84)
	안한다	51.4(107)		마을금고	
	계	100.0(208)		기타	4.0( 4)
			계	100.0(100)	

3%가 21만원~30만원의 소득을 받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직종간의 차이가 크게 있었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소득 및 고용조건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전매공사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57만원이며 연간 상여금 600%를 받고 있었으나,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일수록 소득이 낮고 연간 상여금도 150%미만인 곳이 많아 월평균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도 7.2%나 되고 있다.

또 이들의 급여형태를 보면 19.6%만이 월급제이고, 43.5%가 일당제, 36.5%가 시급제로 전체의 80% 정도가 월소득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즉 질병이나 집안일 등으로 하루를 결근하게 되면, 평균 3

일 정도의 소득을 감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직업이 없는 경우도 19.8%나 되었는데, 이때 주부는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필요는 더욱 절박하다고 하겠다.

#### (2) 가계지출

생활비에서 지출이 가장 많았던 비목으로는 43.1%가 식료품비, 33.8%가 교육비, 9.3%가 집세, 3.6%가 의료비, 10.2%가 관혼상제비등 기타라고 응답하여, 식료품비와 함께 교육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주부 자신의 소득은 주로 생계비(69.2%), 저축

(18.1%), 교육비(7.7%)로 쓰여 지는데, 여기서 저축은 교육 및 주택마련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는 결국 선행연구에서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이유가 생활비 부족, 교육비, 집장만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김혜경, 신현옥, 1990).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가구는 33.3%, 빚이 없는 가구는 66.7%였는데, 빚을 진 원인은 집문제가 가장 커서 빚이 있는 가구의 48.3%가 집 때문이며, 16.7%가 사업관계, 15%가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다.

## 2) 주거상황

〈표 1〉에서 조사대상자 가구의 자가 소유율은 33.0%로 이는 서울시 저소득층 대상의 30.1%, 대구시 영세민의 자가 소유율 6.6%(한국주택공사, 1989)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전도시 근로자 가계의 자가 소유율 42.8%(경제기획원, 1990)보다 낮다. 또 자가를 소유한 경우라도 단독으로 거주하는 가구는 13.8% 뿐으로 1주택당 평균 3.3가구가 동거하고 있으며 5가구 이상 동거하는 가구도 19.6%나 되었다.

1가구당 사용 방 수는 1개만을 사용하는 가구가 33.9%, 2개 사용이 45.4%였고, 화장실의 경우도 67.8%가 2가구 이상 공동 사용하며, 5가구 이상 함께 사용하는 가구도 13.5%나 되어 그 상황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택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앞장에서 본 조사대상자의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택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황 또한 좋지 않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는 48.6%에 지나지 않으며,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최근의 주택가격 폭등 때문에 자신들의 집을 장만할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주택마련을 위한 수단은 84%가 은행저축이나 보험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고 있었다.

부엌은 97%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상하수도 시설이 부엌 내에 갖추어지지 않은 가구도 20.9%나 되었다.

## 2. 가족생활개관 및 결혼과정

### 1) 가족유형, 가구의 크기, 가족주기

조사대상 생산직 기혼여성의 가족형태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표3) 핵가족이 82.6%를 차지하고 직계가족이 10.4% 그리고 기타 가족형태가 7.0%였다. 전국 평균치보다 핵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대상 가족이 직업을 찾아 가족의 일부나 단신으로 도시에 옮겨 온 이농가족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가족의 크기는 평균 4.46인으로서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다(표3). 1990년 총인구조사 결과 전국의 평균가구원수가 3.58인이었는데(경제기획원, 1991) 본 조사대상 가족의 가구원수는 평균 4.13인이다. 이는 1989년 4.16인으로 보고된 서울지역 저소득층 가족의 가구 크기와 유사하다(서울특별시, 1989).

그리고 이들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가족주기는 청년가족이 4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표 3〉 가족 형태 · 크기 · 주기

변 인	구 분	%(N)
가족형태	부부	2.6( 6)
	부부+자녀	72.2(166)
	모+자녀	7.8( 18)
	시부모+부부+자녀	9.1( 21)
	시부모+시형제자매+부부+자녀	1.3( 3)
	기타	7.0( 16)
가구수	1인	1.3( 3)
	2인	6.1(14)
	3인	23.9(55)
	4인	36.1(83)
	5인	18.7(43)
	6인	8.3(19)
	7인	4.8(11)
	8인	0.9( 2)
가족주기	신혼가족	10.7( 4)
	유아가족	19.1( 44)
	학동가족	20.0( 46)
	청년가족	47.4(109)
	진수가족	10.4( 24)
	중년가족	1.3( 3)

다음이 학동기가족(20.0%), 유아기가족(19.1%), 진수기가족(10.4%)의 순서이다. 이와같이 자녀양육의 부담을 벗어난 청년기가족, 학동기가족의 주부가 생산직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자녀

양육이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임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이들 기혼여성을 위한 탁아시설의 복지혜택이 마련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표 4〉 세대간의 이동

변 인	구 분		% (N)
성장지	부 인	농 촌	69.4( 152)
		대 구	16.4( 36)
		타도시	14.2( 31)
	남 편	농 촌	68.2(146)
		대 구	21.5( 46)
		타 도시	10.3( 22)
부인의 대구유입 연령	19세 이하		19.8( 36)
	20~29		46.1( 84)
	30~39		23.1( 42)
	40~49		10.5( 19)
	50~52		0.5( 1)
이동형	혼자		22.5( 41)
	친구와 함께		4.4( 8)
	친척 따라		4.9( 9)
	가족 일부		12.6( 23)
	가족 전체		55.5(101)
직 업	친정부친 직업	농사	74.4(169)
		장사	9.7( 22)
		사무직	2.2( 5)
		기술직	12.8( 29)
		기타	0.9( 2)
	시부직업	농사	70.9(163)
		장사	3.9( 9)
		사무직	3.9( 9)
		기술직	13.9( 32)
		기타	7.4( 17)
	남편직업	없음	9.7( 20)
		단순직, 생산직	33.3( 69)
		자영업	10.6( 22)
		기술직	24.2( 50)
		사무직	15.9( 33)
기타		6.3( 13)	
응답자 남편의 출생순위	장남	35.4( 73)	
	외아들	7.3( 15)	
	차남 이하	57.3(118)	

## 2) 세대간의 이동과 친정, 시가와의 관계

이들 생산직 기혼여성의 성장지는 농촌이 69.4%로(표4) 대부분을 차지하고 타도시에서 대구로 옮겨 온 경우도 14.2%이다. 대도시에서의 인구집중이 한국 산업화, 도시화의 특징(국토개발원, 1990)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대구에 유입한 연령은 20대가 46.1%, 30대가 23.1%이다. 19세 이하의 나이에 대구로 온 경우도 19.8%에 이른다. 이동형태를 보면 가족 전부 함께 온 경우가 55.5%이며 혼자 온 경우는 22.5%이다. 가족 일부가 옮겨 온 경우는 12.6%이며 친척, 친구를 따라 온 경우도 각각 4.9%, 4.4%이다. 가족 전부 오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혼자 도시로 온 경우는 특히 낮은 연령대에 집중되었다.

응답자의 남편 역시 농촌 출신이 68.2%로서 부인과 비슷한 비율이다. 세대간의 직업이동을 통해 계층이동을 알아보려고 친정부친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농업이 74.4%로 압도적으로 많고 기술직이 12.8%, 상업이 9.7%이다. 이에 비해 사무직은 2.2%에 불과하였다(표4). 이들의 시아버지의 직업분포 역시

〈표 5〉 친정, 시가와의 상호 교환 관계

구분	친정과의 관계	시가와의 관계	
	% (N)	% (N)	
주는것	고정적 생활비	0.5( 1)	5.8( 11)
	용돈	8.3( 17)	17.3( 33)
	큰 일, 명절때 선물	39.0( 80)	31.4( 60)
받는것	없음	52.2(107)	45.5( 87)
	생활비 보조	2.6( 5)	1.6( 3)
	양식	6.6( 13)	13.8( 26)
	양념	15.8( 31)	6.9( 13)
	자녀양육	3.1( 6)	2.7( 5)
	일손	0.5( 1)	2.1( 4)
	없음	71.4(140)	72.9(137)

농업이 70.9%, 기술직이 13.9%, 상업과 사무직이 3.9%이다. 이어서 응답자 남편의 직업을 살펴 보면 단순, 생산직이 33.3%, 기술직이 24.2%, 자영업이 10.6% 그리고 사무직은 15.9%이다. 또한 남편이 무직인 경우도 9.7%에 이르고 있다. 즉 생산직 기혼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농촌 출신이며 이들은 또한 생활 기반이 약한 농촌출신 남성과 결혼하여 부모세대와는 독립적인 가족생활을 이룬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세대간 이동양상은 영세농에서 도시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는 수평이동이라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저소득층의 가족실태(1989)와 유사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단신이농이든 전가족이농이든 과반수가 농촌 출신인 이들이 결혼 이후 시가, 친정과의 상호부조가 어떠한가 알아본 결과(표5) 친정(71.4%), 시가(72.9%)를 불문하고 이들이 부모세대로부터 받는 도움은 대다수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동시에 응답자가족이 친정(52.2%)이나 시가(45.5%)에 주는 도움 역시 없다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고정적 생활비나 용돈의 형태로 드리는 경우는 드물었고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나 명절에 선물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친정과 시가를 대비해 볼 때 친정보다는 시가에 용돈을 드리는 비율이 높고 친정과는 의례적인 관계로 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시가우선의 성격은 도움을 받는 관계에도 나타난다. 즉 친정에서는 양식보다 양념류를 보조 받는 비율이 더 높은 데 비해, 시가로부터는 양식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로의 상호부조가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우선으로 상호호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부계친 위주의 친족관계를 맺고 있다는 선행연구(김주희, 199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응답자 남편의 출생순위가 장남은 35.6%이고, 외아들은 7.3%이므로(표4) 무려 42.7%가 통념상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5.8%만이 시가에 고정적인 생활비를 보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들 역시 스스로의 경제적 능력 즉 생계유지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와는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노인의 많은 비

율이 노점, 행상등에 종사하여 경제적 자립을 피하고 있는 현실(최미경, 1990)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부모세대는 중산층의 가족과는 달리 물려 준 것도, 물려 줄 것도 없는 상황이므로 상호간의 독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로부터 일손도움(친정 1.5%, 시가 2.1%)이나 자녀양육의 보조(친정 3.1%, 시가 2.7%)를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이미 응답자 가족들이 자녀양육이나 일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족주기 단계를 넘어선 때문이다. 앞에서 가족생활 개관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양육의 부담을 벗어난 청년기가족, 진수기가족 주부들이라야 생산직에 취업하는 것이 용이한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이다. 결국 결혼과 출산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요약되는 것이니 친족관계망의 부조도 약화된 상황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충은 사회적인 차원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생산직 기혼여성의 대다수는 일찌기 농촌이나 인근 중소도시를 떠나 대도시로 옮겨와 경제적 기반이 없는 농촌출신 남성이나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과 결혼하여 시가우선의 관념은 있으나 실제로 친정이나 시가로부터의 활발한 도움은 서로 주고 받지 못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결혼형태 및 결혼과정

응답자들의 결혼유형을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유형을 통해보면, 중매 62.2%, 연애 24.3%, 절충형이 13.5%이다(표6). 이러한 결혼형태는 연령변화 즉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저연령층에서 연애혼의 비율이 높은 것은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는 이농가족 자녀의 일반적 경향과 일치한다. 이들의 교제기간은(표6) 전혀 없었던 경우가 34.8%로 가장 높고 6개월 정도 교제한 경우가 30.3%이며 일년 정도 교제한 경우가 18.9%이다. 위에서 중매혼이 62.2%였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당사자간의 교제가 전혀 없었던 전통적 중매결혼의 방식과, 중매형식으로 만나고 교제기간을 어느정도 가지나 결혼의 궁극적인 결정은 당사자보다 부모에게 있는 중매

〈표 6〉 결혼형태 및 결혼과정

구 분		%(N)	
결혼형태	중매	62.2(143)	
	절충	13.5( 31)	
	연애	24.3( 56)	
자녀결혼에 대한 부모의 태도	시부모	찬성	89.2(182)
		반대	5.9( 12)
	친정부모	목인	4.9( 10)
		찬성	77.1(158)
		반대	19.5( 40)
목인	3.4( 7)		
교제기간	없음	34.8( 79)	
	~6개월	30.0( 64)	
	~1년	18.9( 43)	
	~2년	7.5( 17)	
	~3년	5.3( 12)	
	3년 이상	3.5( 8)	
동거기간	6개월 미만	32.4( 12)	
	~1년	35.2( 13)	
	~5년	18.9( 7)	
	~8년	13.5( 5)	

결혼의 방식이, 중매결혼을 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반응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 시 사위에 대한 친정부모의 태도는 반대가 19.5%이고 목인이 3.4%이다. 이에 비해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태도는 89.2%가 찬성이고 반대는 5.9%에 불과하다(표6). 저소득층에서도 부모들은 아들에게보다는 딸에게 결혼이 계층상승의 유일한 기회라고 여기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동거 경험은 17.4%로서 결혼식을 하기 이전에 부부의 관계를 유지한 비율이 23.0%에 이른 도시저소득층의 동거비율(박숙자, 1990)보다는 낮게 보고되었다. 동거기간은 6개월미만이 32.4%, 1년이 내가 35.2%인데 5년이상인 경우도 32.4%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동거 이유는 부모의 반대 때문이기보다는 식을 올리는 데에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응책이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자녀보육 및 관리

본 조사대상이 된 생산직 취업모의 연령층에 따라 그들이 속한 가족주기단계가 다르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의 양상이 다를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유아기 및 학동기자녀보육의 문제만을 다루고 청소년기자녀교육의 문제와 부모역할갈등은 두번째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 1) 유아기자녀의 보육실태

##### (1) 양육역할의 대리인

기혼취업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어린 자녀의 양육일 것이다. 본 조사의 대상이 된 230명의 취업모 가운데 유아기자녀를 가진 취업모는 61명이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공장을 통한 206명의 표집 가운데 37명만이 유아기자녀를 둔 취업모로서 어린 자녀를 둔 생산직 근로여성의 비율이 매우 적었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지역탁아소 및 어린이집 5개소를 통해서, 자녀를 수탁하고 있는 여러 직종의 취업모 가운데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사례로 추가되었으나 역시 표집이 용이치 않았음을 볼 때 적당한 탁아시설이나 양육대리인이 없는한, 어린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근무시간이 엄격하고 고정적인 생산직에 취업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알수있다. 61명의 취업모 가운데 자녀를 종일제 탁아시설(대체로 오전 7시 또는 8시부터 저녁 6시 또는 7시까지 돌보는)에 보내고 있는 경우는 26사례였고, 높이방 또는 선교원(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또는 3시까지 돌보는)에 보내는 경우는 3사례, 오전 중에만

〈표 7〉 취원시설 종류

시 설	빈 도
지역탁아소	16
어린이집	10
높이방	2
선교원	1
유아원, 유치원	8
각종학원	8
안보넴	14
계	61

운영하는 유치원 또는 종합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16 사례였다(표7). 시설에 취원시키지 않고 양육대리인이 돌보는 경우는 14사례였고 전혀 돌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있거나 손위형제와 같이 있는 경우가 2사례 있었다. 양육대리인 가운데는 시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8, 친정부모가 3, 친정자매가 2, 이웃에 맡기는 경우가 1사례였다. 이 중 불가피하게 자녀와 별거하면서 시부모나 친정부모, 친정자매의 집에 맡기는 경우가 5사례였다. 이상에서 볼 때 종일제 탁아시설이나 양육대리인이 돌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30%가량의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원을 갔다온 오후시간에 또는 하루 종일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세지역 취업모의 43.9%가 어린 자녀를 집에 방치하고 있다는 보고(여성개발원, 1989)보다는 떨어지는 비율인데, 본 조사대상이 생산직취업모에 국한된 때문일 것이다.

## (2) 수탁요구 및 시설에 대한 요구

자녀를 탁아시설이나 각종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있는 어머니들 가운데 적당한 탁아시설이 있다면 꼭 보내겠다는 경우는 8사례, 안보내겠다는 경우는 4사례, 너무 어려서 더 있다 보내겠다는 경우는 2사례였다. 안보내겠다는 경우는 자녀가 곧 취학아동이 되는 경우이다. 현재 양육대리인이 있더라도 적당한 탁아시설이 있다면 보내고자 하는 어머니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친구도 사귀고, 언어 발달을 위해서도 탁아소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어머니들의 반응에서,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가정양육보다는 탁아보호가 어린이의 발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탁아시설의 위치는 집근처가 압도적으로 많고(13사례), 직장안은 적어서(1사례)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편리함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다. 기대하는 탁아비용은 3만원이 4사례로 가장 많고 5만원, 2만5천원은 각각 2사례씩으로 반수가량의 어머니가 2만5천원에서 5만원이내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자녀를 탁아시설이나 각종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45명의 어머니들 가운데 2만원에서 3만5천원까지 내고 있는 경우가 40사례로 대다수였으며 그들이 시설에 바라는 것의 제1위는 「시설이 좀더 좋았으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시간연장, 프로그램의 질, 비

용저렴 등이나 지역탁아소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보육비가 싸서 별다른 불평이 없다는 반응도 있음을 볼 때 지역탁아소에 현재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리 높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으며 「우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8). 이를 통해 일단 비용이 저렴한 탁아시설의 양적 증대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 2) 학동기자녀관리와 훈육

### (1) 학동기자녀의 방과후 생활

자녀의 방치는 유아기자녀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학동기자녀에 있어서도 생활지도 및 건강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조사대상 중 학동기자녀를 둔 취업모는 82명이었는데 방과후 학동기자녀가 누구와 어떻게 어디서 시간을 보낸다고 알고 있는지 묻은 결과, 형제끼리만 있는 경우가 반수가깝고(48.8%), 할머니가 같이 있는 경우는 7.3%, 나머지는 혼자있거나(23.2%), 친구와 같이 있다고 하였다(표9). 하는 일은 대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52.4%) 집에 있다(41.5%)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표10, 표11). 그러나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11.

〈표 8〉 시설에 대한 기대

내 용	1위	2위	3위
비용저렴	4	2	1
시간연장	11	4	0
시설우수	13	7	0
놀이감다양	1	5	5
프로그램우수	5	5	6
교사자질우수	1	1	2
간식충실	4	2	2
없다	6	2	2
계	45	28	18

〈표 9〉 방과후 같이 있는 사람

종 류	빈도(%)
형 제	40(48.8)
할머니	6( 7.3)
친 구	17(20.7)
혼 자	19(23.2)
계	82(100.0)

〈표 10〉 방과후 주로 하는 일

종 류	빈도(%)
공부	43(52.4)
논다	30(36.6)
모름	9(11.0)
계	82(100.0)

〈표 11〉 방과후 주로 가는 곳

장 소	빈도(%)
학 원	18(22.0)
놀이터	9(11.0)
오락실, 만화가게	8( 9.8)
학 교	8( 9.8)
친구집	3( 3.7)
길거리	2( 1.4)
집	34(41.5)
계	82(100.0)

〈표 12〉 자녀에 대한 걱정

내 용	빈도(%)
숙제 공부 소홀	37(48.7)
건강염려	35(46.1)
T.V. 시청과다	24(31.6)
주위환경	21(25.6)
말안듣고 버릇없음	12(15.8)
낮에 방황	8( 9.8)
사고위험	8( 9.8)
나태	4( 4.9)

\* 복수응답이므로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82명 가운데 각 문제를 가진 %임.

〈표 13〉 자녀에 만족하는 점

내 용	빈도(%)
말잘들음	49(59.8)
자립심	38(46.3)
숙제공부잘함	21(25.6)
건 강	20(24.4)
성격원만	19(23.2)
집안일도움	12(15.8)

\*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82명중 각 항목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임.

0%)는 경우와 오락실 만화가게에 출입하거나 길거리에서 보낸다(12%)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현재 자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점 가운데 1위는 숙제 공부소홀(48.7%)이었고 다음이 자녀의 건강(46.1%), 지나치게 TV보는 것(9.8%), 사고염려(9.8%)의 순이었다(표12). 한편 자녀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점은 부모말 잘듣는 것(59.8%), 자립심(46.3%), 공부잘함(25.6%) 등이었다(표13). 저소득층 취업모들의 희망과 기대가 자녀교육을 통해 빈곤의 세습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자녀에 대한 지도나 지원 등 구체적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여건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공부 잘해주기를” 바라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막연한 희망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녀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2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방과후 식사준비나 간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을 볼 수 있으며 취업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하나로서도 학교급식이 확산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자녀훈육방법 및 훈육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꾸중하는지 훈육방법을 알아본 결과(표14) 가끔 때린다는 어머니가 가장 많고(51.6%), 다음이 말로 타이른다(35.4%)였다. 이는 빈곤가정에서 언어적 벌보다 체벌이 보다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연구(이순형외, 1991)결과와도 유사하다. 자녀를 주로 체벌하는 사람은 아버지(15.8%)보다 어머니(74.2%)였다. 아버지의 훈육자로서의 역할이 현대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이행되어진 일반적 경향과 일치한다. 자녀의 체벌사유는 부모말을 안듣고 버릇없이 굴 때가 가장 많고(29.0%), 다음이 숙제, 공부소홀(26.1%), 형제싸움(18.9%)의 순이었다(표15). 본 조사대상 취업모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형제화목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학업성취에 높은 가치를 둠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가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의 반응은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사주기도 하고 안사주기도 한다는 비밀관적인 대처가 가장 많고(47.6%), 설득해서 단념시키는 경우는 18.9%, 대개 사준다는 허용적인 경우는 13.4%였다(표16). 가정경제에 무리가 되는 자녀의 물질적인 요구에 대해 일관성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질지향주의가 중

<표 14> 자녀훈육방법

방 법	빈도(%)
말로 타이름	29(35.4)
가끔 때림	46(56.1)
자주 때림	5( 6.1)
벌 세움	2( 2.4)
계	82(100.0)

<표 15> 자녀체벌사유

사 유	빈도(%)
말안듣고 버릇없음	20(29.0)
숙제공부 소홀	18(26.1)
형제싸움	13(18.9)
용돈낭비	7(10.1)
오락실출입	4( 5.8)
거짓말	3( 4.3)
T.V. 시청과다	2( 2.9)
늦은 귀가	2( 2.9)
계	69(100.0)

<표 16> 자녀요구대처행동

대처행동	빈도(%)
대개 사중	11(13.4)
형편에 따름	39(47.6)
대개 안사중	6( 7.3)
설득, 단념시킴	13(18.9)
그런 일 없음	12(15.8)
무 응 답	1( 1.2)
계	82(100.0)

류지역에 비해 빈곤지역의 아동에 있어 의미있게 높고 물질적 보상 역시 빈곤가정아동이 보다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이순형외, 1991)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편 이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물질적 보상이란 자녀들을 위한 교육자료나 요구들을 전반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푼돈으로 무마하는 정도이며 물질 자원이 빈약한 이러한 상황이 저소득층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낮추고 단호하고 일관성있는 훈육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가사노동 및 가사분담

조사대상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1일 수입노동시간은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시간 10분의 작업시간과 1시간 5분의 이동시간을 합하여 10시간 15분이 라는 장시간에 이르고 있으며, 일요일에도 쉬지 않

<표 17> 생활 시간표

분 류	단위-시간:분(%)	
	평일(N=203)	휴일(N=184)
노동시간	13 : 25	7 : 23
수입노동시간	10 : 15	2 : 32
작업시간	9 : 10	2 : 04
이동시간	1 : 05	0 : 28
가사노동시간	3 : 10(100)	4 : 51(100)
식생활관리	1 : 26(45.3)	1 : 41(34.7)
의생활관리	: 29(15.3)	1 : 4(22.0)
주생활관리	: 32(16.8)	: 46(15.8)
가족돌보기	: 20(10.5)	: 18( 6.2)
장보기 및 기록	: 19(10 )	: 55(18.9)
기타	: 4( 2.1)	: 7( 2.4)
사회, 문화적 시간	1 : 41	4 : 56
생리적 시간	8 : 54	11 : 42

<표 18> 가사노동 수행

변 인	구 분	%(N)
자신이 느끼는 가사노동 시간	충분하다	18.8( 43)
	보통이다	20.6( 47)
	부족하다	51.3(117)
	매 우 부족하다	9.2( 21)
	계	99.9(228)
가장 소홀해 지는 집안일	자녀양육, 교육	23.9(54)
	친척관계	15.9(36)
	식사준비	14.2(32)
	큰빨래, 의류정리	9.3(21)
	빨래	8.4(19)
	정리정돈	7.9(18)
	기타	11.1(25)
	없다	9.3(21)
계	100.0(226)	

는다는 주부가 50.4%였다. 또 기혼여성이므로 이상의 생산노동과 함께 한가정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생산노동인 가사노동도 모두 이들의 책임인 것이다.

#### 1) 가사노동 수행 및 가사노동시간

〈표 18〉에서 보면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60.5%가 자신들의 집안일 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자신들의 취업으로 인해 소홀해진다고 생각되는 일로는, 첫째가 자녀양육 및 교육, 둘째가 친척관계, 식사준비, 큰 빨래나 의류정리, 일상적인 빨래, 집안의 정리정돈(대청소)의 순이었다.

이를 가족주기에 따라 나누어 보면 더 뚜렷이 구별이 되는데, 학동기 이전의 주부는 자녀양육(37%), 식사준비(12%), 집안의 정리정돈(9.8%), 그리고 큰 빨래나 의류정리, 친척관계가 각각 8.7%였으나, 청년기 이후의 주부는 친척관계(20.9%), 식사준비(15.4%), 자녀교육(14.7%) 등의 순이었다. 즉 자녀가 어린 경우는 자녀양육이, 자녀가 큰 이후는 친척관계 일을 제대로 수행치 못함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식사준비가 소홀하다고 응답한 주부가 상당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직 기혼여성 가정의 복지를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집안일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 응답자도 9.3%였는데, 이들의 경우는 자신이 잠을 못 자더라도 집안일을 한다거나, 또는 직장일보다 집안일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표 17〉에서 이들의 1일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1987년 전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6시간 15분이나(한국방송공사, 1987) 선행연구들의 취업주부 가사노동시간보다는 훨씬 적으나, 같은 생산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혜경등(1990)의 조사결과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즉 생산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일반 비취업여성에 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직업의 취업여성에 비해서도 상당히 짧은데, 이는 그들의 취업노동시간이 특히 긴 때문으로 가사노동시간과 취업노동시간을 합한 1일 총노동시간은 13시간 25분이나 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영역별 소비시간을 보면, 전체가사노동 시간의 45.3%인 1시간 16분을 식생활 관리에 쓰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생활 관리, 의생활 관리 등의 순이고, 가족돌보기나 장보기 및 기록 등은 적은 비율이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식생활 관리 다음으로 가족돌보기의 비중이 커지는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의 전반적인 가사노동시간구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김선희, 1989). 특히 식생활관리시간이 전체 가사노동시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짧은 가사노동시간이므로 생활에 필수적인 식사준비 및 설거지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한편 휴일의 경우는 가사노동시간이 4시간 51분으로 늘어나고, 시간사용구조도 식생활 관리의 비중이 줄어 든 반면 의생활 관리와 장보기 및 기록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을 볼 수 있다.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생활을 가사노동시간 중심의 생활시간 구조로 살펴보면, 평일은 장시간의 작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가사노동만을 하고 지내며 휴일은 세탁, 장보기등의 밀린 가사노동과 부족한 수면등을 보충하고 있었다. 이는 휴일에 오히려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일반 주부들의 생활시간구조와 비교할 때(한국방송공사 1981, 1983, 1985, 1987), 주부의 취업에 따른 이중노동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 2) 가사분담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인 가족원간의 가사분담 정도를 보기 위해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를 살펴본

〈표 19〉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

구분	빨래	설거지	식사준비	청소	이부자리정돈	생활비관리	은행일보기
점수*	1.4	1.2	1.3	1.6	2.2	1.5	1.9

\* 점수는 1 : 거의 안함 2 : 가끔한다 3 : 자주한다의 평균 점수임.

결과는 (표19)와 같다. 남편의 분담정도는 매우 미미해서 이부자리를 개고 펴는 일이나, 은행일보기, 자녀돌보기 및 학습지도 등에서 가끔씩하는 정도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분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남편의 분담을 바라지 않는 주부가 39.6%였으며, 분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소나 자녀돌보기 및 학습지도 등이었다.

이와같이 남편에게 더이상의 가사분담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이유의 하나로는 생산직 기혼여성 남편의 직업 역시 단순, 생산직이 33.3%로 이들의 노동시간 또한 장시간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伊藤등(1989)은 일본의 경우 남편의 가사분담이 적은 이유를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부인의 총노동시간과 맞먹는 데서 찾고 있다.

남편이외의 가사분담자로는 없는 경우가 48.6%, 딸의 분담이 31.7%, 시어머니의 분담이 9.6%로 시어머니 보다는 딸이 분담자인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이는 가족형태 중 핵가족의 비율이 82.6%로 높은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가족원간 가사분담 상황에 대해 25%만이 불만을 나타냈으며, 42.2%는 만족, 32.8%는 보

통이라고 응답하여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자신들의 과중한 이중노동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사분담에 대한 기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및 근로의식

1) 취업구조의 일반적 실태

기혼 생산직 여성의 취업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실태를 먼저 살펴 보았다(표21). 조사 대상업체의 상당수가 섬유제조, 또는 봉제등으로 여성 노동집약적인 업체를 선정한 결과, 여성 종업원수는 200인 이상 규모가 37.9%로 가장 많고, 100인-200인미만이 36.0%, 50인-100인 미만이 18.2%, 그리고 50인 미만

<표 20> 가사분담 상태

변 인	구 분	%(N)
남편에 대한 분담 희망	없다	39.6( 72)
	청소	13.7( 25)
	자녀학습지도	13.2( 24)
	자녀돌보기	9.3( 17)
	빨래	7.7( 14)
	기타	16.5( 30)
	계	100.0(182)
남편이외의 가사분담자	없다	48.6(101)
	딸	31.7( 66)
	시어머니	9.6( 20)
	아들	3.8( 8)
	기타	6.3( 13)
	계	100.0(208)
가사분담 만족도	만족	42.2( 86)
	보통	32.8( 67)
	불만	25.0( 51)
	계	100.0(204)

<표 21> 취업 구조의 일반적 실태

변 인	구 분	%(빈도)
기업규모 (총 여성노동자)	50인 미만	7.9(16)
	50인 - 100인 미만	18.2(37)
	100인 - 200인 미만	36.0(73)
	200인 이상	37.9(77)
기혼여성 규모 (업체)	20인 - 50인 미만	(7)
	50인 - 100인 미만	(5)
	100인 이상	(4)
근무형태	주간	42.8( 96)
	2교대	57.2(128)
작업시간	8시간 미만	17.4( 39)
	8시간 - 10시간 미만	48.2(108)
	10시간 - 12시간 미만	34.4( 77)
퇴직금	있다	97.7
	없다	2.3
승진	있다	21.3
	없다	78.7
정년제도	있다	56.5
	없다	43.5
급료형태	시급제	36.7( 84)
	일당제	43.7(100)
	월급제	19.6( 45)
구직경로	모집광고	11.3( 26)
	친구, 친지	79.1(182)
	일터가 가까움	7.0( 16)
	기타	2.6( 6)

이 7.9%였다. 조사대상업체의 기혼 여성의 취업 규모는 20인-50인 미만이 7개 업체, 50인-100인 미만이 5개업체, 100인 이상이 4개업체였다. 근무형태는 주간 근무만 하는 응답자는 42.8%이고, 2교대는 57.2%였다. 작업시간은 8-10시간이 48.2%로 가장 높았고, 10-12시간이 34.4%, 8시간 이내는 17.4%로 대부분 기본 8시간 노동보다 길었다. 일요일 작업여부를 보면, 쉬는 경우와 쉬지 않는 경우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절반이상의 기혼 여성들은 휴일도 없이 노동을 계속하였다.

생산직 기혼 여성의 복지 실태를 살펴 보면, 퇴직금제도는 97.7%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승진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1.3%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65.5%는 정년 제도가 있다고 하였으며, 정년 연령은 대부분 55-58세로 나타났다. 현재의 직장을 구하게 된 경로를 살펴 보면, 응답자의 79.1%가 친구나 친척을 통하여 일을 구하였고, 모집 광고를 이용한 경우는 11.3%, 일터가 집근처에 있어서 하게 된 경우가 7%로 나타났으나, 대중매체인 라디오나 T.V. 등 개방적인 구직경로를 통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생산직 종사자의 모집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친지, 친척을 통한 개인적이고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공채로 모집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급여는 주로 일당제로 받고 있으며(43.7%), 시급제가 36.7%, 그리고 월급제가 19.6%에 불과하였다. 한달평균 수입은 30만 7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생산직 종사자의 한달 수입인 33만 2천원보다 약간 낮았다(1988, 노동부).

현장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특별히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이 전체의 38.7%로 매우 높았다. 특정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 습득에 필요한 기간은 3개월 미만이 39.6%, 3-6개월이 6.4%, 6개월-1년이 5.4%, 1년 이상의 장기간은 9.9%에 불과하였다(표22). 또한 기술 습득은 응답자의 83.9%가 작업현장에서 직접 배운다고 하여 기업측으로부터의 기술 훈련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겠으며, 기혼여성 노동력의 단순 반복작업과 무기질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여성 자신의 건강 유지와 낮은

〈표 22〉 기술 습득기간

습득기간	%(빈도)
특별히 배울 필요가 없다	38.7( 86)
3개월 미만	39.6( 88)
3개월 - 6개월 미만	6.4( 14)
6개월 - 1년 미만	5.4( 12)
1년 이상	9.9( 22)
계	100.0(222)

보수이고, 짧은 휴식시간이나 작업환경등은 이차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혼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업체들의 작업환경은 성별 분업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남성과 여성간의 성차별 자체는 거의 의식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기혼 여성들의 남녀 차별에 대한 시각이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작업장내의 남녀 불평등문제는 대부분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성차별을 받았다는 소수의 응답자들은 주로 남녀간의 임금격차 문제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여성 노동자 임금이 남성의 약 50%밖에 못미친다는 점에서 볼때, 기혼여성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노동부, 1988). 이러한 남녀 임금격차의 비율은 생산직에서는 특히 1970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기혼과 미혼 여성의 차별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67%는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20%가량의 응답자는 임금이나 상급자의 태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고 인식되는 이 시점에서 미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근로의식 및 직업만족도

기혼여성의 결근율, 이직여부, 취업의식등을 통하여 근로의식을 살펴 보았다(표 23). 먼저 결근율을 보면, 지난달 결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1.7%, 1번이 11.3%, 2-5번이 9%로 응답자의 결근율은 대체로 낮아 근로 의식이 비교적 건전한 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번 이상 결근한 응답자 64명에 대하여 결근 이유를 살펴 본 결과 29명은 자신의 건강때문이었으며, 나머지 35명은 친인척 결혼이나 판

〈표 23〉 기혼여성 노동자의 근로의식

변인	구분	%(빈도)
결근율	없음	71.7(165)
	1번	11.3(26)
	2번 - 3번	7.8(18)
	4번 - 5번	3.0(7)
	6번 이상	6.2(14)
이직 여부	이직을 생각중이다	24.7(55)
	이직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75.3(168)
취업 의식	현재와 비슷한 일을 계속 하겠다	47.0(108)
	현재 일은 그만 두지만, 무슨 일인가 계속 하겠다	30.9(71)
	일을 그만 두고 집에서 쉬겠다	21.7(50)

공서, 은행일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특히 건강 문제는 기혼여성이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가장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여성노동자들이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더 나쁘다는 한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맹광호, 1988). 즉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매일 매일의 가사노동과 세대간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등의 노동, 그리고 직장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심각한 고통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가족행사에 참여해야 하거나, 은행 및 관공서 등의 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생산직이외의 다른 기혼취업여성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어려움이기는 하다. 그러나 상당수가 이농의 배경을 가진 생산직 여성들에게는 주변 친족간의 상부상조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노동시간도 상대적으로 길며, 대체노동이 거의 없는 이들집단의 여성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응답자의 이직여부를 보면, 이직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경우가 24.7%였으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닐 것이라는 응답이 75.3%로 대부분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이직이유로는 응답자의 33.3%가 낮은 임금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작업량, 작업환경등 작업조건과 관련된 이유로 27.8%를 보여, 생산직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문제와 열악한 작업 조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직을 원하는 46.4%가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직업이나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는 다른 논문과는 대조를 이룬다(이동원, 1966). 한편 임금, 휴가, 작업량, 작업시간, 그리고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조사한 결과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의식을 보면, 응답자의 47.0%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할지라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이와 비슷한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였으며, 30.9%가 '현재 일은 그만 두지만 쉬지않고 무슨 일이든 계속하고자'하였고, 응답자의 21.7%만이 '현재 일을 그만 두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였다. 즉 응답자의 77.9%가 비록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 할지라도 계속 일을 하고자하는 높은 취업의식을 나타내 여성노동이 결코 단편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기업주들이 흔히 지적하는 기혼여성의 낮은 취업의식과는 대조를 이룬다.

3) 기혼여성의 노동에 대한 태도와 가족의 지지도  
기혼 여성의 노동의식을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하는 일에 비하여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79.5%)는 항목과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다'(77.5%)는 항목에는 상당수가 동의하였으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1.5%가 동의하였고, '경제 발전을 위하여 낮은 임금은 참아야한다'는 항목은 응답자의 50.0%만이 동의하여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24). 그러므로 기혼여성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 성장위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더이상의 개인적 희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노동조합등의 조직적인 활동에 대하여서도 과반수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

〈표 24〉 기혼여성 노동자의 노동의식 (%)

항 목	그 렇 다	모 르 겠 다	아 니 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하는 일에 비하여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79.5	15.2	5.3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77.5	9.0	13.5
경제 발전을 위하여 낮은 임금은 당분간 참고 견디어야 한다.	50.0	22.8	27.2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71.5	22.2	6.3

〈표 25〉 직장생활에 대한 가족의 지지도

	찬 성	그저 그렇다	반 대
남 편	48.1%	33.0%	18.9%
자 녀	19.8%	28.0%	52.2%
시 부 모	42.6%	37.8%	19.6%
친정부모	30.4%	25.7%	43.9%

혼 여성노동자들도 이제는 단순한 가계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노동의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도를 살펴 보면, 남편의 경우 '찬성'이 48.1%이고, '그저 그렇다'가 33.0%, '반대'가 18.9%이다. 자녀들은 '찬성'이 19.8%, '그저 그렇다'가 28.0%, '반대'가 52.2%이며, 친정부모는 찬성보다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았고, 시부모는 반대보다 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표25). 즉 남편과 시부모는 부인의 취업에 대하여 비교적 찬성하는 편이고, 자녀들과 친정부모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가족구성원들에 따른 지지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 IV. 맺음말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실태를 일터와 가정생활의 양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대구 지역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생산직 기혼여성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개별 면접과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의 질적인 접근을 병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응답자들의 가족은 대부분이 이농가족이므로 핵가족이 82.6%나 되었고, 가족주기는 청년기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저연령층에서 연애혼의 비율이 높았고 또한 이들은 결혼식에 드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사실혼의 관계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생산직 기혼여성의 과반수가 농촌 출신인데, 이들은 도시생활의 기반이 마찬가지로 취약한 농촌출신 남성과 결혼하여 부모세대와는 독립적인 가족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모세대와 경제적 교환이 있을 경우 미약하나마 부계친 위주의 성격이 발견되었고 통념상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는 장남, 외아들의 경우에도 상호간에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이어서 생산직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실태를 살펴본 결과 탁아시설이나 양육대리인이 돌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려 30% 가량의 취업모의 유아기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원을 다녀 온 오후 시간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집근처 또는 직장 안에 탁아소가 설치되기를 절실히 원하였다. 그리고 학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에도 어머니 자신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나 실제로 자녀들은 방과 후에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부모의 희망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취업모임에도 자녀훈육의 역할을 맡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물질적 보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가사노동 실태를 살펴보면 생산직여성들은 평균 9시간 10분 작업하고 1시간 5분을 이동하는 데 소요하며 3시간 10분을 가사노동에 보내어 하루 총노동시간이 13시간 25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양육과 교육을, 자녀가 큰 경우에는 친척관계 일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평일은 장시간의 작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가사노동만을 하고, 휴일에는 밀린 가사노동과 부족한 수면 등을 보충하는 취업여성의 과중한 부담을 확인하였다. 생산직 기혼여성은 주로 친구나 친척등의 인적 관

계망을 통해 취업하였으며 과반수가 일요일도 없이 일하였고 월급제보다 일당제, 시급제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들은 휴식시간의 부족이나 열악한 작업환경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낮은 보수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이미 성별로 분절화된 무기술의 단순반복 작업에 배치되어, 은폐된 성차별과 더불어 기, 미혼의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남편이나 시부모보다 자녀와 친정부모가 취업을 더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혼여성들은 가족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과 세대간의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출산과 자녀양육 등의 노동 그리고 직장의 일까지 이중, 삼중의 노동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와같이 밝혀진 생산직 기혼여성의 실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째, 기혼 여성의 근로의식도 상당히 성숙되어 있으며,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닌 생계유지의 필수적인 소득을 담당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남성노동자와 동등한 대접을 받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생산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임금, 승진, 정년에 대한 내용은 물론 작업 환경에 미치는 조항에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가 정책으로 마련되고 또한 그것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는 물론 영아기자녀까지 맡길 수 있는 탁아소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직장 내 탁아소 설치를 보다 강화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가시화하여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양육시설을 지원하여야 하고 현실성 있는 탁아입법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주거지역이 열악한 지역에 학동기 자녀를 위한 공부방을 열어 훈련받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 및 학교급식의 확대가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의 한 방안으로 무료결혼식의 기회를 더욱 늘리고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을 대폭 증대시켜야 한다.

네째, 취업여성의 임노동과 가사노동의 과중한 부

담을 줄이기 위하여는 우선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별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각종 교육기관을 동원하여 조화로운 삶을 깨닫게 하는 장기적인 방안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면밀한 계획과 노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다.

## 참고문헌

- 1) 강명순, 빈민여성, 빈민아동, 아침, 새책5, 1985.
- 2) 경제기획원, 1989년 도시가계 연보, 1990.
- 3)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7.
- 4) 국토개발연구원,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1989.
- 5) 김선희, "도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989, 111-126.
- 6) 김애령, "노동자 가족의 생계유지와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7.
- 7) 김정자, "아동보육에 대한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6권 2호, 1988, 34-71.
- 8) 김종순, "빈민지역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아동학회지 제2권, 1981.
- 9) 김주희, "도시 저소득층의 친족문제,"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세미나 발표논문, 1990.
- 10) 대한주택공사, 영세민 주거실태 및 의식조사연구, 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 1989.
- 11) 맹광호,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실태와 그 관련요인들에 대한 계량적 분석, 심포지움, 카톨릭 의대, 1988.
- 12) 박숙자,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 하나의 문화, 1991.
- 13) 박혜인, "한국 농촌가족에 대한 가족발달적 접근," 현대 여성문제연구 17집, 1990.
- 14) 변화순, "영세지역아동보육 및 환경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7권3호, 1989, 5-42.
- 15) 변화순,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권 4호, 1990.
- 16) 서봉연, 이춘재, "낙후지역유아원 프로그램개발

- 을 위한 기초조사,” 아동학회지 제7권, 1986.
- 17) 양옥승, “도시빈곤층지역탁아소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8권4호, 1990, 39-69.
- 18) 여성연구회, 여성3, 1989.
- 19) 위미혜, “도시빈민층기혼여성의 탁아에 대한 요구,” 이대석사논문, 1989.
- 20) 윤현숙,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7권2호, 1989, 108-128.
- 21) 이각범, “산업발전과 노동시장의 변동,”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 사회학회, 1984.
- 22) 이동원,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27, 1976.
- 23) 이명숙, “탁아서어비스에 대한 기혼취업여성의 욕구조사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83.
- 24) 이미영, 기혼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25) 이수자, 한국 영세 제조업의 성별 노동분업연구,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4.
- 26) 이순형외2인, “빈곤가정아동의 환경지각연구,” 아동학회지 11권1호, 1991.
- 27) 이승미,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 방안 — 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9.
- 28) 이연주,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1984, 131-146.
- 29) 이영외2인, “한국취업모의 자녀양육현황과 문제점,” 아산재단연구보고서, 1986.
- 30) 정미자, 위미혜, “생산직취업모의 탁아서어비스의 요구 및 그들을 위한 탁아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1호, 1990, 123-140.
- 31) 조연순, “도시저소득층 취학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 연구,” 이대여성학논집 제5집, 1988.
- 32) 조형, “도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관한 일연구,” 논총 41,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82.
- 33) 최미경, “주거지역에 따른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90.
- 34) 팽경인, “노동자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 방식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8.
- 35) 한경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989, 1-13.
- 36) 홍승아, “여성노동의 사회적 존재형태 및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7.
- 37) 황충효, “아동발달에 있어서 빈곤환경의 효과,” 강원대인문학연구 제17집, 1982.
- 38) Beechey, V. “Women and production: a critical analysis of sociological theories of women’s work”, *Feminism and Materialism*, London: RKP, 1978.
- 39) Gecas, V.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Socialization,” in W. R. Burr, R. Hill, F. Ivan, Nye, I. L. Reis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Family*,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 40) Haftstrom, J.L. & V.R.Schram, “Housework Time of wives :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1983, 245-256.
- 41) Hartmann, H., “The family as locus of gender, class and political struggle”, *Signs* 6, Michigan University Press, 1981.
- 42) Nickols, S.Y. & E. J. Metzzen,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1978, 85-97.
- 43) Walker, K.E. & M.E. Woods,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A, 1976.
- 44) 伊藤セツ, 天野寛子,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 : 光生館, 1989.